

인간소외의 근원적 토대

독자투고 현대과학기술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I. 현대문명의 위기

현대문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흔히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머지않아 기술천국(technopia)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기도 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덕택으로 인류의 삶은 이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구가하고 있다. 금세기 초반 하더라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비약적인 발전이다. 비록 그것이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우든 인류는 현재 고도선진문명의 단계에 와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데 주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일찍이 인간의 삶에 위협적이었던 자연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았던 인간은 이제 인간의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외의 대상이라기보다 인간의 필요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졌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부단히 계속되어 온 자연의 지배는 오늘날 비록 완전한 수준에 이르는 못했더라도 거의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류는 이제 비로소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산다. 과학기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찬란한 문명의 빛을 전 인류에게 비추어 줄 것이다. 그 누구도 이러한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현대문명의 정당성을 묻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인류가 진보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질문은 케케묵은 골치거리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낡은 진리를 불붙고 살아가는 교실에서나 다우어질 문제이지, 현실에서는 이미 남보다 뒤떨어진 세대이거나 낙후된 후진국의 자기변명일 뿐으로 치부된다. 그런데 세상스럽게 왜 글썽머리에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것일까?

II. 목적 상실한 과학기술발전

진보에 대한 갈망은 실상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더 많은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확대하기

위한 문명질서의 수립은 인류의 지속적인 꿈이었다. 그와 함께 선진문명에 대한 기대는 그것이 애초 호기심의 단계를 벗어나서 어느 사이엔가 경외와 신망의 대상으로 바뀌어 후진문명에 속한다고 느낀 민족국가들에게 발전의 모델과 모방의 준거물로 자리 잡았다.

분명 현대문명의 실현은 선진국의 출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더욱이 나날이 그 격차가 심해지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과학기술수준의 차이는 문명화된 선진국과 문명화되지 못한 후진국간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따라서 후진국의 모든 관념은 오직 그 간격을 메우는 데만 집중되고 있다.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영원히 뒤떨어지는 현실의 중압감 속에서, 남보다 앞서가는 새로운 과학기술만이 미래에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대안이다. 문명화된 선진국의 과학기술수준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정답이다.

그러나 근세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이성화론'문명은 어쩌면 야만적인 폭력보다도 더 큰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다. 근대이후 오늘날까지 문명의 전과과정에서 숭한 비극적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실상 문명의 전파라는 허울좋은 마법하에 얼마나 많은 대량학살이 이루어지고, 야만이라는 누명아래 정신적인 생명의 일부분이라 할 인종학의 문화적 전통과 비서구문명이 말살되는 비극을 경험했는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그것이 상이한 민족간의 문화적 전통을 전혀 무시한 채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다. 근대인이 처한 이러한 상황 자체가 현대세계의 존재가치를 묻는 계기가 된다. 곧 자기가 속해 있으면서도 전혀 자기와 무관한 듯한 느낌을 갖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거부할 단서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살만한 곳이 못된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산과 강이 죽어가고, 방사능오염으로 기행인들이 태어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여가는 온갖 독극물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소위 최첨단미사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장면을 항상 접하는 모습을, 이역만리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그것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만이 현대에서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기술자를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현대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이다. 늘 상 폭주하는 업무속에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새벽녘이 다 되어 서야 잠자리에 든다. 물론 그가 잠자는 시간에도 사무실에 비치한 초현대식 전자제품들은 열심히

소수계층·특정계층에 집중되는 문명혜택 과학기술, 인간해방의 수단으로 발전해야

히 작동하고 있다. 그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물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던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느 사이엔가 그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인간해방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소외의 근원적 토대로 변질된 것이다. 이것이 본래 의도했던 방향이 아니라면 현대문명은 이에

III. 인간소외 아닌 해방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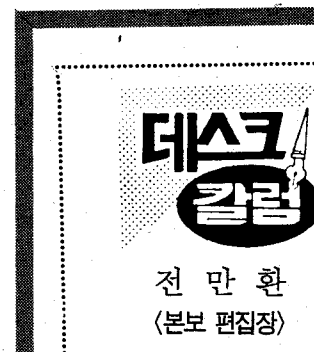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문제 자체 내에 있기가 십상이다. 현대문명의 정당성을 묻는 이유는 그것이 현대인의 삶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그가 어디에 있는 상관없이 고도로 발달한 기계문명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 일상적인 삶 또한 현대문명 혹은 문화라는 이름하에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다. 현대인이 처한 이러한 상황 자체가 현대세계의 존재가치를 묻는 계기가 된다. 곧 자기가 속해 있으면서도 전혀 자기와 무관한 듯한 느낌을 갖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거부할 단서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살만한 곳이 못된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산과 강이 죽어가고, 방사능오염으로 기행인들이 태어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여가는 온갖 독극물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소위 최첨단미사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장면을 항상 접하는 모습을, 이역만리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그것

송두리째 없애고도 남은 핵무기를 사람이 갈만한 곳이면 어디든 설치해 놓고 있다. 날로 비인간화되어 가는 인간성과 자연의 황폐화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인류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보라빛 청사진으로 제시되는 후기산업사회에서도 '풍요속의 빈곤'은 날로 심화될 전망이다. 문명의 혜택이 특정국가나 소수특권층에 집중되는 반면, 대

다수 사람들은 매일의 빵을 위해 기계처럼 혹사당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근세이후 한없이 치달리던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느 사이엔가 그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인간해방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소외의 근원적 토대로 변질된 것이다. 이것이 본래 의도했던 방향이 아니라면 현대문명은 이에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행회의'가 '공안통치 종쇄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범국민대행회의'로 명칭을 개편하고 지도부를 연세대에서 명동성당으로 옮겼다.

명동성당으로 옮긴 까닭이 '정치민주화의 일변지 명동성당'에서, 민주화투쟁의 성지에서 항전을 불사하겠다는 지도부의 결의의 표상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한다.

지난 4월26일부터 즉각적인 공동투쟁을 통해 소위 '반노전선'을 구축한 '현신적'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자 한다는 찬사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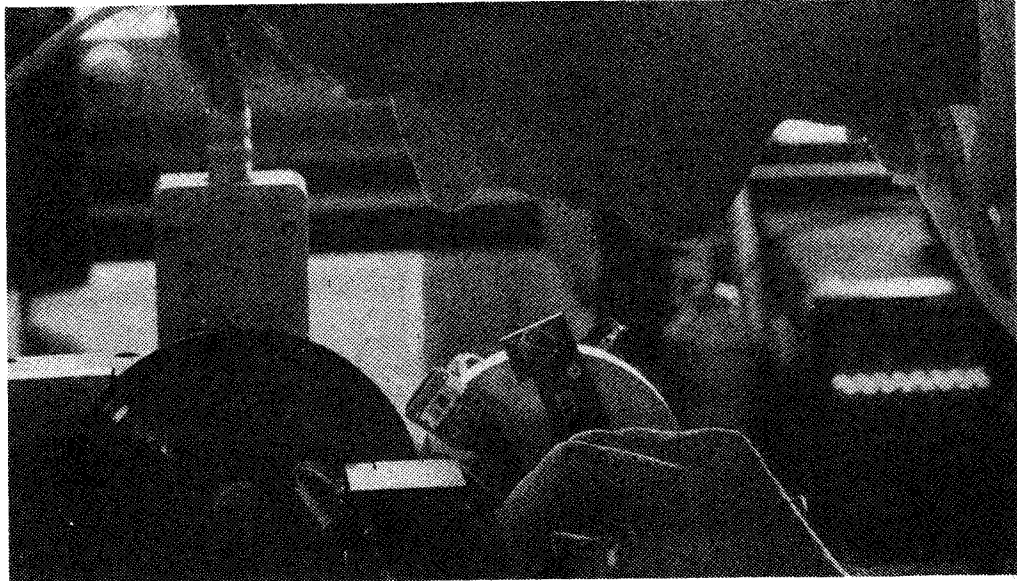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이 故 강경대군의 장례식 이후 소강된 국면을 계속 지도해나가고자 하는 열의에도 불구하고 파쇼의 개량화 조치로서 노재봉내과 일부사퇴로 대중

근대문명의 탄생 이후 육망의 충족만을 위해 달리던 초고속과 학기술열차를 잠시나마 세울 필요가 있다. 현대인의 상실된 가치를 새로 회복시켜야만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요구된다. 겉으로는 '과학기술의 인간화'를 내세우면서 온연중 인간을 상품화시키는 고도의 선진술이라든지, 동양적 관념세계를 유별나게 강조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원시회귀운동 따위는 안된다.

IV. 인간해방 현실세계 가능

현대문명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모순, 그 뿌리를 그대로 온존시켜온 채 세계평화나 지구구구를 성급히 부르짖는 데는 허위가 있을 수 있다. 마치 선비의 도를 추구하다 통풍에 빠진 현대관 양반사조의 부활이 적지않게 눈에 띄는 것도 우려할 만한 현실이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호도하는 원천이며, 근본적

방을 포기하고 현실도피를 추구하는 그릇된 풍조를 조장하는 단서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어쩌보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기에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현실의 난맥상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문제를 앞두고 피안의 세계로 도피할 것이 아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의해 현대인은 인간성과 자연의 황폐화를 겪는다

라, 전도된 주제-객체관계를 현실세계에서 바로 세우는 것은 인간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근본과제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피안의 세계로 은퇴를 운운할 정도라면, 심지어 옛날의 백이숙제

도 진실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해는 이 점에서 분명히 옳다. 현대문명이 빛은 비극적 상황, 현대인이란 누구냐 처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어느 한 사람이 은퇴할 만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상당한 노동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모순이다. 이 모순이 극복되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남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은 물론,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관계가 성립된다.

이 모순이 해결된 다음에야 누구나 자기 멋대로 물리학과 역술인, 철학자와 누시꾼, 혹은 시인과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아무도 간섭할 바 아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뒤떨어진 현실에서 거꾸로 선 인간과 과학기술의 위치를

본래대로 회복시켜 바로 세우는 운동으로 온 인류의 힘을 모을 때다. 늦으면 늦을수록 지금도 계속되는 무수한 인간의 애통한 삶이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구조화되는 그만큼 훨씬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위대한 천재의 등장과 첨단과학기술의 천국을 부르짖는 고도산업사회의 문턱에서 나날이 왜소화해가는 현대인의 초라한 모습이 눈시울을 적신다. 그 속에서 선진문화조국의 창조대열에서 점점 더 후미진 구석으로 떠밀려만 가는 이 땅의 가난하고 못배운 절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현대문명에 대한 기본인식과 발전방향을 새롭게 정립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미개인의 오만일까?

박 호 성
(본교강사·정치학)

대중방기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들의 분노와 열사들의 죽음이 만들어낸 '계기적' 사안이 희석화되었음을 느낄 것이다.

또 최근 언론의 보도에서 서서히 등장하는 광역의회선거가 보수야당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들의 고의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노내과 사퇴와 함께 다음 정치사안으로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잠재된 불만을 현 제도 정치권내에서 이용하려는 속셈에 역이

던 거리에서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을 기억하면 쓸쓸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범국민대행회의는 정권의 개량화와 언론플레이에 맞서 단결투쟁, 도덕적인 헌신투쟁을 강조하며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광역의회선거를, 92·93년의 권력재편기를 예상하고 있다. 너무나 환상적인 계기성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투쟁을 우연적으로, 정세를 주

파도민주정부나 하는 대안을 갖고 논쟁한다. 권력의 관리자는 총리라는 한 명 버만 교체했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대 말이다.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과 희석화된 계기를 놓고 따져서는 안된다. 단순한 정의감에서 동료의 죽음에 분노한 학생, 노동자, 시민이 한두번의 규탄투쟁 정도로 자족해 하거나 무기력해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전술을 놓고 논쟁할 시기에 정권이 차분하게 각 계급·계층의 동향을 파악했던 것처럼 다시금 민중들의 모습에 눈을 두어야 한다. 정권은 결코 당황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계산에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성언론은 정권의 충실한 원조자로서 민중운동을 왜곡·무력화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투자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국민 선전선동과 투쟁의 지도를 통해 정권의 본질을 계속 폭로해나가기야한다. 이는 궁극적인 권력대안을 굳이 대중들에게 주입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전망과 승리의확신을 가능케할 것이다.

전술논쟁에 소모된 역량

용 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공이 있어 있을 전대협출범식과 각학교 별로 진행될 대중제, 이후 시기적인 사안으로서의 6·10등을 거머쥔 어느 선에서 우리가 구호로만 외쳤던 '정권타도'가 될 것인가. 분명 국민의 분노를 촉발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소모적인 방법논쟁, 허약한 전술에 의해 대다수 민중은 가두현장에서 사라졌다. 그들이 87년 6월을 환상하며 '뛰쳐나왔

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현시국을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들은 임시민주정부의 수권세력으로서의 대개혁의가 아니라 투쟁지도부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과연 현재의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중은 5월투쟁의 거리에서 보였던 것처럼 숫자만 채우고 우왕좌왕하기만 하는 사람들인가. 돌아와서 대학을 보자. 임시민주정부,

中央日報社가 한국 최초로 시도하는 서양名畫의 原畫재생!
미국의 Harry N.Abrams와 독점 계약 출판!

서양미술대전집

(전 21권)

* 21권의 내용과 특징

●17세기의 렘브란트와 벨라스케스에서 20세기의 거장 마티스와 피카소에 이르는 세계미술의 대가들이 집대성되어, 시대별로 서양 미술의 진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훌륭한 참고도서이다.

●각 권마다 다채롭고 풍부한 40여 매의 원색도판 및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많은 흑백도판이 실려있는 정밀인쇄본이다. 특히 본 전집은 Abrams社와 독점계약을 맺고 입수한 제판필름으로 인쇄함으로써 볼 후의 명작들을 원화에 가깝게 재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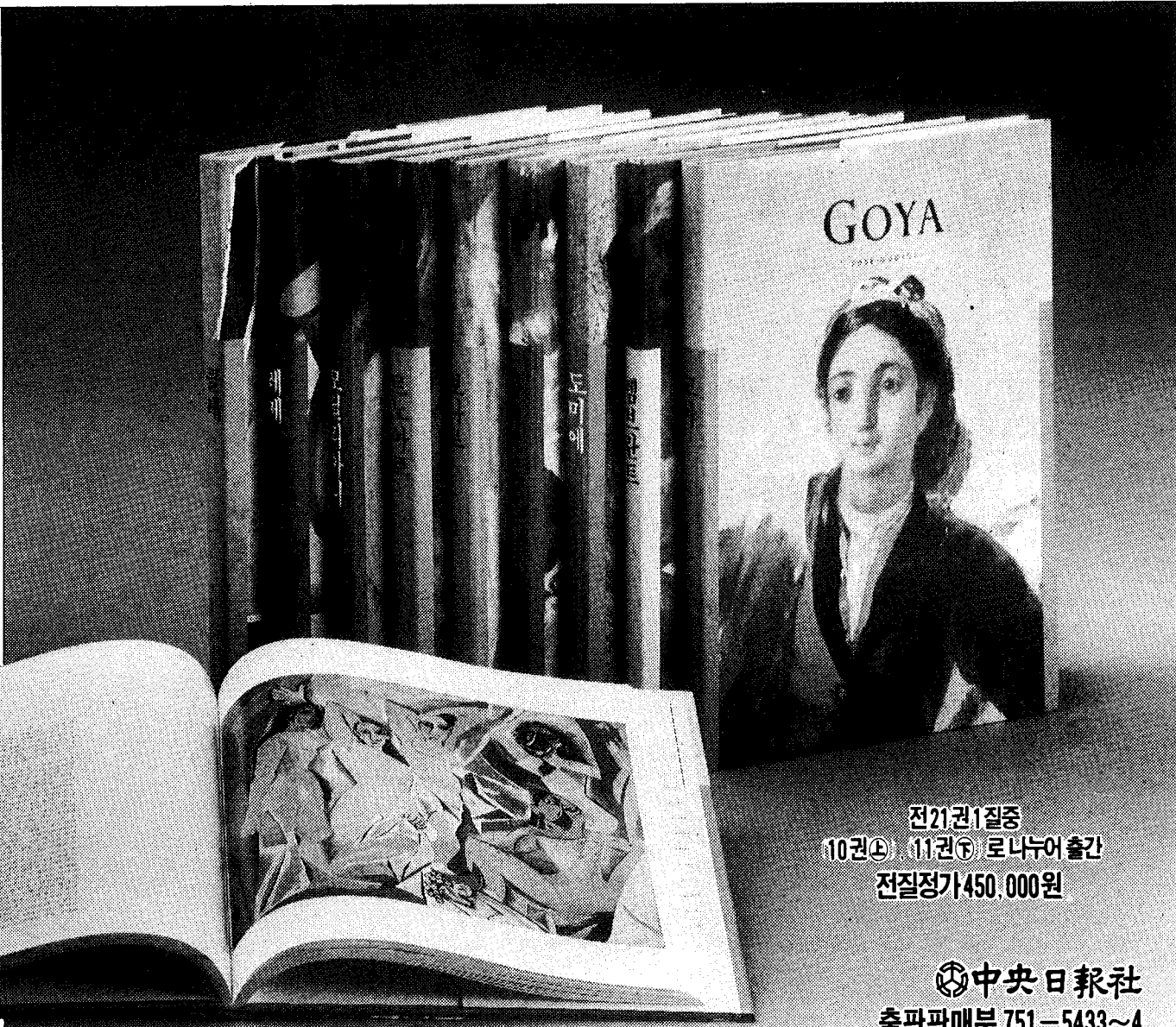
●세계의 저명한 미술사가와 미술 비평가 및 유명 미술관의 관장들이 서술한 깊이있는 연구논문과 작품 해설이 실려있는 탁월한 전문서적이다.

●원화에 방불한 생생한 느낌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서양미술대전집을 하나 갖게 되었다. 썩 기쁜 일이다. 미국에서 만든 원화 도판 필름들을 들여다 찍은 것이긴 하지만 원화에 방불한 그림, 권위있는 세계 굴지의 미술관 관장들이 쓴 배어난 해설이 마음에 든다. 렘브란트, 마티스, 모네, 세잔, 고흐, 피카소... 인간의 진실과 영혼을 그린 이들 불후의 명작들은 우리같은 미술전문가가 보기에조차 아주 생생한 느낌이 든다.

—李慶成(國立現代美術館長)

上질: 고야·뒤파·도미에·레제·렘브란트·르노아르·모딜리아니·보나르·피카소·클레
下질: 고갱·드가·마티스·몽크·모네·몬드리안·반 고흐·벨라스케스·세잔느·쇠라·툴루즈-로트렉



전21권1집중
10권④ 11권⑥ 로 나누어 출간
전질정가 450,000원

中央日報社
출판판매부 751-5433~4

통계청 서울: 751-6800, 751-6812, 751-6813, 751-6814, 751-6815, 751-6816, 751-6817, 751-6818, 751-6819, 751-6820, 751-6821, 751-6822, 751-6823, 751-6824, 751-6825, 751-6826, 751-6827, 751-6828, 751-6829, 751-6830, 751-6831, 751-6832, 751-6833, 751-6834, 751-6835, 751-6836, 751-6837, 751-6838, 751-6839, 751-6840, 751-6841, 751-6842, 751-6843, 751-6844, 751-6845, 751-6846, 751-6847, 751-6848, 751-6849, 751-6850, 751-6851, 751-6852, 751-6853, 751-6854, 751-6855, 751-6856, 751-6857, 751-6858, 751-6859, 751-6860, 751-6861, 751-6862, 751-6863, 751-6864, 751-6865, 751-6866, 751-6867, 751-6868, 751-6869, 751-6870, 751-6871, 751-6872, 751-6873, 751-6874, 751-6875, 751-6876, 751-6877, 751-6878, 751-6879, 751-6880, 751-6881, 751-6882, 751-6883, 751-6884, 751-6885, 751-6886, 751-6887, 751-6888, 751-6889, 751-6890, 751-6891, 751-6892, 751-6893, 751-6894, 751-6895, 751-6896, 751-6897, 751-6898, 751-6899, 751-6900, 751-6901, 751-6902, 751-6903, 751-6904, 751-6905, 751-6906, 751-6907, 751-6908, 751-6909, 751-6910, 751-6911, 751-6912, 751-6913, 751-6914, 751-6915, 751-6916, 751-6917, 751-6918, 751-6919, 751-6920, 751-6921, 751-6922, 751-6923, 751-6924, 751-6925, 751-6926, 751-6927, 751-6928, 751-6929, 751-6930, 751-6931, 751-6932, 751-6933, 751-6934, 751-6935, 751-6936, 751-6937, 751-6938, 751-6939, 751-6940, 751-6941, 751-6942, 751-6943, 751-6944, 751-6945, 751-6946, 751-6947, 751-6948, 751-6949, 751-6950, 751-6951, 751-6952, 751-6953, 751-6954, 751-6955, 751-6956, 751-6957, 751-6958, 751-6959, 751-6960, 751-6961, 751-6962, 751-6963, 751-6964, 751-6965, 751-6966, 751-6967, 751-6968, 751-6969, 751-6970, 751-6971, 751-6972, 751-6973, 751-6974, 751-6975, 751-6976, 751-6977, 751-6978, 751-6979, 751-6980, 751-6981, 751-6982, 751-6983, 751-6984, 751-6985, 751-6986, 751-6987, 751-6988, 751-6989, 751-6990, 751-6991, 751-6992, 751-6993, 751-6994, 751-6995, 751-6996, 751-6997, 751-6998, 751-6999, 751-7000, 751-7001, 751-7002, 751-7003, 751-7004, 751-7005, 751-7006, 751-7007, 751-7008, 751-7009, 751-7010, 751-7011, 751-7012, 751-7013, 751-7014, 751-7015, 751-7016, 751-7017, 751-7018, 751-7019, 751-7020, 751-7021, 751-7022, 751-7023, 751-7024, 751-7025, 751-7026, 751-7027, 751-7028, 751-7029, 751-7030, 751-7031, 751-7032, 751-7033, 751-7034, 751-7035, 751-7036, 751-7037, 751-7038, 751-7039, 751-7040, 751-7041, 751-7042, 751-7043, 751-7044, 751-7045, 751-7046, 751-7047, 751-7048, 751-7049, 751-7050, 751-7051, 751-7052, 751-7053, 751-7054, 751-7055, 751-7056, 751-7057, 751-7058, 751-7059, 751-7060, 751-7061, 751-7062, 751-7063, 751-7064, 751-7065, 751-7066, 751-7067, 751-7068, 751-7069, 751-7070, 751-7071, 751-7072, 751-7073, 751-7074, 751-7075, 751-7076, 751-7077, 751-7078, 751-7079, 751-7080, 751-7081, 751-7082, 751-7083, 751-7084, 751-7085, 751-7086, 751-7087, 751-7088, 751-7089, 751-7090, 751-7091, 751-7092, 751-7093, 751-7094, 751-7095, 751-7096, 751-7097, 751-7098, 751-7099, 751-7100, 751-7101, 751-7102, 751-7103, 751-7104, 751-7105, 751-7106, 751-7107, 751-7108, 751-7109, 751-7110, 751-7111, 751-7112, 751-7113, 751-7114, 751-7115, 751-7116, 751-7117, 751-7118, 751-7119, 751-7120, 751-7121, 751-7122, 751-7123, 751-7124, 751-7125, 751-7126, 751-7127, 751-7128, 751-7129, 751-7130, 751-7131, 751-7132, 751-7133, 751-7134, 751-7135, 751-7136, 751-7137, 751-7138, 751-7139, 751-7140, 751-7141, 751-7142, 751-7143, 751-7144, 751-7145, 751-7146, 751-7147, 751-7148, 751-7149, 751-7150, 751-7151, 751-7152, 751-7153, 751-7154, 751-7155, 751-7156, 751-7157, 751-7158, 751-7159, 751-7160, 751-7161, 751-7162, 751-7163, 751-7164, 751-7165, 751-7166, 751-7167, 751-7168, 751-7169, 751-7170, 751-7171, 751-7172, 751-7173, 751-7174, 751-7175, 751-7176, 751-7177, 751-7178, 751-7179, 751-7180, 751-7181, 751-7182, 751-7183, 751-7184, 751-7185, 751-7186, 751-7187, 751-7188, 751-7189, 751-7190, 751-7191, 751-7192, 751-7193, 751-7194, 751-7195, 751-7196, 751-7197, 751-7198, 751-7199, 751-7200, 751-7201, 751-7202, 751-7203, 751-7204, 751-7205, 751-7206, 751-7207, 751-7208, 751-7209, 751-7210, 751-7211, 751-7212, 751-7213, 751-7214, 751-7215, 751-7216, 751-7217, 751-7218, 751-7219, 751-7220, 751-7221, 751-7222, 751-7223, 751-7224, 751-7225, 751-7226, 751-7227, 751-7228, 751-7229, 751-7230, 751-7231, 751-7232, 751-7233, 751-7234, 751-7235, 751-7236, 751-7237, 751-7238, 751-7239, 751-7240, 751-7241, 751-7242, 751-7243, 751-7244, 751-7245, 751-7246, 751-7247, 751-7248, 751-7249, 751-7250, 751-7251, 751-7252, 751-7253, 751-7254, 751-7255, 751-7256, 751-7257, 751-7258, 751-7259, 751-7260, 751-7261, 751-7262, 751-7263, 751-7264, 751-7265, 751-7266, 751-7267, 751-7268, 751-7269, 751-7270, 751-7271, 751-7272, 751-7273, 751-7274, 751-7275, 751-7276, 751-7277, 751-7278, 751-7279, 751-7280, 751-7281, 751-7282, 751-7283, 751-7284, 751-7285, 751-7286, 751-7287, 751-7288, 751-7289, 751-7290, 751-7291, 751-7292, 751-7293, 751-7294, 751-7295, 751-7296, 751-7297, 751-7298, 751-7299, 751-7300, 751-7301, 751-7302, 751-7303, 751-7304, 751-7305, 751-7306, 751-7307, 751-7308, 751-7309, 751-7310, 751-7311, 751-7312, 751-7313, 751-7314, 751-7315, 751-7316, 751-7317, 751-7318, 751-7319, 751-7320, 751-7321, 751-7322, 751-7323, 751-7324, 751-7325, 751-7326, 751-7327, 751-7328, 751-7329, 751-7330, 751-7331, 751-7332, 751-7333, 751-7334, 751-7335, 751-7336, 751-7337, 751-7338, 751-7339, 751-7340, 751-7341, 751-7342, 751-7343, 751-7344, 751-7345, 751-7346, 751-7347, 751-7348, 751-7349, 751-7350, 751-7351, 751-7352, 751-7353, 751-7354, 751-7355, 751-7356, 751-7357, 751-7358, 751-7359, 751-7360, 751-7361, 751-7362, 751-7363, 751-7364, 751-7365, 751-7366, 751-7367, 751-7368, 751-7369, 751-7370, 751-7371, 751-7372, 751-7373, 751-7374, 751-7375, 751-7376, 751-7377, 751-7378, 751-7379, 751-7380, 751-7381, 751-7382, 751-7383, 751-7384, 751-7385, 751-7386, 751-7387, 751-7388, 751-7389, 751-7390, 751-7391, 751-7392, 751-7393, 751-7394, 751-7395, 751-7396, 751-7397, 751-7398, 751-7399, 751-7400, 751-7401, 751-740